한국禪 1200년

4人4色 전문가 대담

‘K-참선’ 미래, ‘인재양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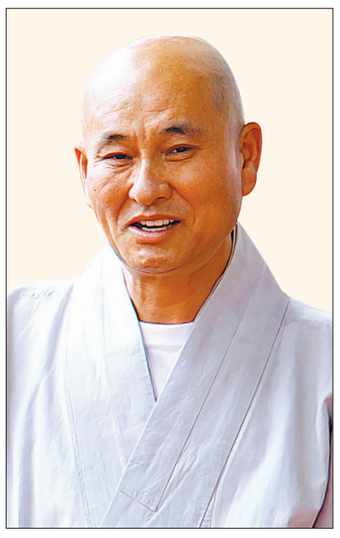
신성민 · 노덕현 기자

821년. 도의국사가 신라로 돌아왔다. 귀국한 도의국사는 설악산으로 들어가 운둔했고, 그곳에서 선법을 펼쳤다. 2021년은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한지 꼭 1200년이 되는 해이다.

선 전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선의 전래로 한반도에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인간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봤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교학불교와 의례불교가 성행하던 통일신라 말, 도의선사에 의해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直指人心) 그 성품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는 조사선의 종지가 도입된 것은 한국불교사와 사상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중생이 부처요, 사람이 부처인 선불교의 도래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인간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교수는 “선의 전래와 그것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은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당시 한반도가 대륙의 지성사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월암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禪 전래, ‘한국 인본주의’ 기틀

‘朝參夕聚’ 선원 전통 되살려야

언택트 시대 맞는 지도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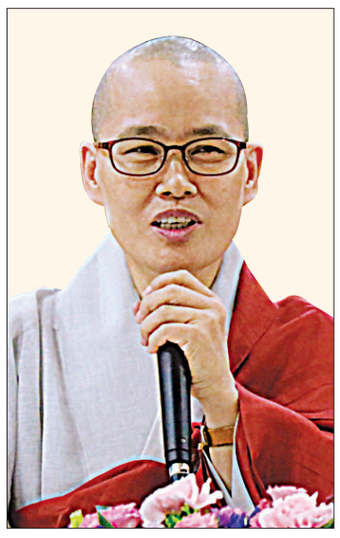


정도 스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선문단련설, 내 · 외전 겸수 강조

시대언어로 해설 · 지도는 ‘과제’

다양한 역량 갖춘 납자 양성을



정운 스님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선 · 교 · 염불… ‘삼문일치’ 강조해

한국선 알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사대주의 벗어나 고유성 찾아야



박재현 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교수

사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결과

현 교육체계, 선지식 배출 어려워

“영상 지도, 자세 흉내내기 정도”

禪, 한반도 정신문화 영향지대

중국서 시작된 선은 한국으로 전래되며 한국 선만의 사상 · 문화를 형성했고, 한반도 정신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종파를 중심으로 중국불교가 형성됐다면 한국은 ‘구산선문’이라는 선문(禪門)을 중심으로 선법이 펼쳐졌다”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선사상이 깃들어 있다. 끽다거와 화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같은 표현들은 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한국의 선은 오롯이 선만을 지향한 경우보다는 선과 교를 모두 인정하며 일치를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선을 바탕에 두고, 교를 일치시켰다. 선주교종(禪主敎從) · 통교귀선(通敎歸禪) 적인 선교일치”라고 설명하며 “수행법에 있어 염불문(念佛門 · 정토) · 원돈문(圓頓門 · 교) · 경절문(徑截門 · 선) 삼문을 지향한다. 선교일치와도 맞닿는데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삼문일치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월암 스님 역시 선교겸수와 선행일치를 한국 선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과 바라밀행이 하나 되는 선행일치 사상을 통해 선 수행은 안심입명의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요익중생이라는 실천행으로 중생에게 회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심이 불심’이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선불교 사상은 신이나 부처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동학의 ‘사람이 하늘(人乃天)’이라는 사상과 실천 또한 이러한 인본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원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선원수좌회 좌담회에서 “좌선 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일갈한 前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의 비판과도 맞닿는다.

정운 스님은 “현실을 성찰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없다. 효담 스님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비판은 곧 우리나라 선이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며 “생사(生死) 자체가 열반 경지이므로 굳이 좌선이 강조되어야할 이유가 없다(道不用修 但莫汚染). 좌선만이 강조된다면, 임제종계의 간화선이 아니라 조동종의 묵조선(只管打坐)”이라고 지적했다.

‘선교겸수’가 한국 선 수행의 본령임을 재차 강조한 월암 스님은 “불조의 가르침은 선과 바라밀행이 둘이 아닌 선행불이(禪行不二)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선문의 병폐는 분명 일률적으로 좌선에 함몰되어 오직 고목선(枯木禪, 고목처럼 앉아만 있는 선)만을 지향하는 선원 행태일 것”이라며 “모든 경전이나 어록이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착안해 보면 현재 선문의 수행풍토 또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의 상당(上堂) · 보설(普說) · 참문(參問) · 소참(小參) · 선강(禪講) · 거량(擧揚) · 탁마(琢磨) · 점검(點檢) 등 다양한 선수행 방편의 장점을 되살려내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행 납자를 위한 충언도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선원청규 상 총림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조참석취(朝參夕聚, 아침에 묻고 저녁에 모인다)’로 매일 장로 선지식에게 법을 묻고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다. 우리 선문에 이러한 전통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선문의 납자도 당연히 단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선자(修禪者)가 지극한 단련을 통하여 얻은 중도정견(中道正見)의 선지를 시대 언어와 문자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도 스님은 “명나라 회산 스님이 지은 〈선문단련설〉에서는 외학과 내학, 내전과 외전을 모두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는 맥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현재 선문화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상 붐, 기회이자 위기

최근 명상 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도 스님은 “명상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의 간화선은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그 내용은 매우 깊은데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망했다.

월암 스님은 “신심안정과 정신치유 등 낮은 단계의 여러 명상문화의 현상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종국에는 선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뇌과학과의 접목은 현대인들에게 선의 대중화와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교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가짜정보도 넘쳐날 수밖에 없다. 명상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선 수행 지도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라고 강조한 정운 스님은 세계적 가수로 성장한 아이돌 BTS의 예를 들었다. 2010년 데뷔한 BTS는 인지도가 낮아 방송 출연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2013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4년 만에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이 생기더니 2017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AMA) 소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다.

정운 스님은 “한국불교 역시 이 같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한국선의 역사 △조사선과 간화선의 이론 △간화선 실참 △한국의 명안종사 소개 △조계종의 역사 및 여러 수행법 소개 △현 승려들의 삶과 수행 등을 소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암 스님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선수행 지도방편을 구사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앱 개발,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비대면 명상문화 창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필코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원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재현 교수는 언택트 수행 지도는 한계점이 여실하다고 봤다. 박재현 교수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 씨는 ‘언택트 시대에 공연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연은 대체 불가능하다. 생선회를 통조림에 넣어서 팔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 수행은 공연보다 더욱 그렇다”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줌(Zoom)을 통해서 좌선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의 선 수행은 딱 거기까지”라고 밝혔다.

한국선문화 진흥 어떻게

한국 선수행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 과제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한국불교 고유성 찾기 등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월암 스님은 “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중생과 더불어 공감하고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조계종의 모든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선수행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기본선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이력과정에 혹은 이력과정 이후라도 3년 이상 선의 이론과 실참을 병행해 출가자라면 누구나 기본과정의 선(명상) 지도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도 스님은 인재 불사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저력은 20년 가량의 철저한 교육제도”라면서 “최근 동국대 선학과에서는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개설했다. 선을 배우고 수행하며 이를 회향하는 과정을 함께 배우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려들 자신의 본분사에서 진정한 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운 스님은 “선방이나 공부하는 승가대학 등에서 일부분이나마 재가자들에게 문을 개방해야 한다. 선방을 승려 전용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출재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꿔보자. 이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출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불교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운 스님은 “한국불교는 사대(事大)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마치 서구의 불교학이나 심리학과 접목된 명상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불교계에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한국불교 전공 분야에 주목을 많이 받는 고승이 원효 스님과 보조국사 지눌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교수는 “한국 선 전통의 정체성을 뚜렷이 정립하는 것이 선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승가교육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세속적 교육체계는 눈 밝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우수한 교수요원을 승가교육체제로 끌어들이고, 우수한 자질의 수행자가 승가교육 체계 안에 남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학 같은 세속적 교육체계로는 키워낼 수 없는 훌륭한 수행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신축년, 힘찬 기운으로 200만 부산 불자들의 신심을 결집하여 불도 부산을 일으키겠습니다.

회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21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문
박원양 장복만 김재진 박정오 조효식 이윤희
설동근 전광수 이영숙 김수현 하정선 정분옥

■ 자문위원
이장호 김진수 박무성 김영섭 박태학 박한일
전호환 정홍섭 박홍대 박순곤 고영립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친목부회장 배상진 총무부회장 박종문
교육부회장 최대경 경조부회장 신기열
기획부회장 이희태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박수곤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의전이사 정연식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헌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집전 류상영

■ 이사
정분남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순례
김영자 류강렬 백정진선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성재곤 심인택 정순천 허 준 하승준 박수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